

21세기 삶의 질과 한국 지리학의 과제

박 영 한*

Quality of Life and Som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Korean Geography

Park Young-han*

1. 들어가는 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다. 과연 새로운 세기의 인류는 물질적·정신적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려면 인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를 거쳐 지식사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도래할 것이며, 환경과 문화가 중시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망은 근대산업화를 거친 20세기의 산적한 문제와 정보·지식사회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데서 나온 화두인 듯하다. 20세기 인류가 저지른 무분별한 산업화와 환경파괴는 지구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경제 하에서 정보화·지식사회화가 진전된다면, 조화와 공존보다는 획일화와 불균등의 심화가 세계문제로 등장하리라고 보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그 심각성은 더욱 더 고조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류에게 직면한 도전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이다. 새로운 세기의 삶의 질은 환경의 관리와 다원적 문화의 증진과 직결된

다고 볼 때, 지리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21세기 삶의 질 향상에 지리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한국 지리학의 연구과제와 한국 지리학이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삶의 질 개념과 지표: 사회과학 일반의 논의

인류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멋있고 보람되게 사는가를 생각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성장의 덕분으로 오늘날 절대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게 되고,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적 자율성의 증대로 개인 의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일반이나 학계에서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삶의 질 연구의 필요성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개발을 마련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김상균 외, 1996a, b)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삶의 내용을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개인이 느끼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중시된다. 만족감은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의 복합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삶의 질이란 사회적인 물질·인적 조건 및 제도와 그런 사회에서 매일 매일 삶을 영위하는 사회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작용하는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상균 외, 1996b). 삶의 질이 주관성과 상대성을 중요시하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성을 지녀야 하므로 삶의 질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삶의 질 지표가 이용된다. 위의 삶의 지표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은 국가발전 정도에 따라 객관적·물질적 유형에서 객관적·비물질적 유형으로, 그리고 주관적·물질적 유형에서 주관적·비물질적 유형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의 우선순위가 이동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회적 속성에 따라 안전성, 편의성, 신뢰성, 쾌적성, 통합성, 형평성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이들 속성에 높아질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한다.

이처럼 삶의 질은 사회발전의 정도가 진전될수록 주관적·비물질적 요소가 중시된다고 보며, 21세기 삶의 질의 평가도 교육의 성취나 문화향유와 같은 요소의 관찰에 유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삶의 질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나오는 행복과 만족을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경우와 사회정책의 실현으로 인한 복지증진이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생활향상을 가져오게 한 객관적 경우의 종합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양자는 독립된 것이라기보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니는 복합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장소에 관한 삶의 질의 평가와 제고(提高)도 양 요소의 결합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삶의 질과 지리학의 연구과제

지리학은 공간과 장소의 과학으로, 공간의 질서

와 장소의 성질을 탐구하는 과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은 흔히 지구상에 형성된 인류의 다양한 삶의 터전을 공간적, 생태적, 지역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규명하려는 학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리학은 세계화-지방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 필수학의 학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현대 한국의 지리학 연구는 산업화·근대화 와 더불어 변동하는 사회와 공간의 연구에 몰두하여 왔으며, 그 성과는 근대화와 삶을 추적하고 문제점을 밝혀서 공간발전론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연구는 인간활동의 기본 요소를 대상으로 개별현상의 고찰에 치중한 나머지 전체상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환경 생태적 연구 역시 물질 요소의 분석에 주력하면서 환경생태에 관한 종합적 연계고리의 연구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질의 개선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지역연구 역시 내적 결합을 인과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한 실천적 연구 역시 내놓을만한 업적이 없는 듯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지리학적 연구가 삶의 질 연구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 지리학에서 삶의 질 연구의 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질은 인간중심적 가치가 내재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 연구는 궁극적으로 발전·향상이란 가치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수단이 필요하다. 지리학에서의 삶의 질 연구는 공간행태연구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삶의 질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건강성'과 '불균등성'이란 제하의 연구를 비롯하여 삶의 질의 지표를 지역에 적용해 보는 단편적인 것들이 간간히 발표되고 있는 정도였다.

다행히도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공간과 환경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다룬 일련의 연구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행하여졌다¹⁾.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의 도움으로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연구는 다수의 지리학자와 인접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한 공동노력의 결실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공간·환경의 토대에서 형성된 삶의 질 연구영역을 입지·환경·장소로 범주화하고 있다. 부연하면, 입지는 생활기반요소의 공간적 배치로, 환경은 사회적·자연환경적 안전으로, 장소는 귀속감과 정체성의 부여에 의한 정신적 안전으로 삶의 질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지리학의 연구영역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삶의 질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안전성을 비롯한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 형평성, 통합성등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속성과 공간·장소의 결합에서 연구의 대상과 접근 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30여 년에 걸친 지리학 연구는 요소 분석에 중점을 두어온 것 같다. 특히, 생산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복지 관련 부문인 빈곤과 노인문제, 교육·보건문제의 연구량이 적은 편이다.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른 삶의 질 연구영역을 유추해볼 때, 환경 및 장소연구가 새로운 세기의 중점과제로 떠오른다. 지난 40여 년간에 걸친 산업화·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두 가지의 중대사를 잃어버렸다. 하나는 인구가동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공간 연구를 통해서 장소의 연구를 잃어버렸다. 21세기의 한국지리학은 공동체적 유대를 통한 생활의 만족감과 여유로움을 더해줄 수 있는 장소 연구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장소성의 연구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아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문화의 정통성과 전통성은 지역의 힘이며, 이 힘은 장소의 연구로부터 그 원천을 파악할 수 있다. 장소성은 지역공동체 정신이며 지역정신의 본령이다. 공동체 정신은 사회적 유대의 공고화를 통해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지역적 사고를 공유하는 사회, 일체감을 누리는 사회를 형성케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지방화의 모태이다.

지리학도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지역마다 차이나는 원인을 찾아야 하며, 지역의 형성력이 지역발전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를 이해하고, 장소성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지리학은 확고히 설 수 있는 것이다.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언급한 것 같이, '우리는 지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것은 후손에게 온전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의미이다. 지리학은 환경생태적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연환경의 개별요소 연구에서 나아가서 자연세계의 총체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지리상의 발견시대 이후 '하나의 세계'로 진전되었을 때, 엄청난 지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임무를 맡은 것이 근대지리학이었다. 지구시대가 성숙된 새로운 세기에는 모든 경계를 초월하여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다음 세기의 지리학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장소는 자연세계를 비롯하여 인간과 사회, 사회와 환경이 얽혀 있는 공간이다. 지리학은 이러한 지역의 내부 결속을 원활히 하는 통합작용법과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을 원활히 하는 연계작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것들이 정보화·지식화에 의한 새로운 변혁의 세기를 맞이하여 변동하는 사회를 이해하려는 지리학의 임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동법의 개발은 21세기 삶의 질 연구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4. 21세기 삶의 질과 한국 지리학의 제도적 과제

1) 문제와 반성

시민사회나 학문세계에서 삶의 질은 21세기의 화두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는 마냥 살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한국 지리학 연구가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지리학은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 지리학은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경쟁에서 낙오할 우려마저 있다. 한국지리학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역

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 지리학의 과제를 논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 지리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학들의 지리학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문적 기틀이 잡히고, 2000년 세계지리학회대회 한국에서 개최할 만큼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의 지리학 연구의 전통과 발전과정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와 함께 새천년기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지리학자들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간 지리학은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인접 학문의 발달에 비추어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 성장하는 인접학문이나 새로운 주제에 접근하는 신생 학문의 발전상에 비추어 보면, 지리학은 오히려 정체를 면치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리학의 상대적 정체성(停滯性)의 원인은 내적으로는 전문화의 미비와 외적으로는 사회인식의 부족이다.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학문의 성격과 연구인력의 부족은 세분된 전공영역을 심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지리학회대회의 전문영역이 30여 개에 달한다. 여기에 비하여 한 학과의 전임교수 수가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리학 교수의 수도 150명을 넘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지리학의 전문영역을 대표하는 학회들의 10여 개가 있는데, 여러 학회에의 참여 빈도가 높다. 이것은 학자들의 전문영역이 세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이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타문화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게 한다.

현실적으로 지리학의 연구 내용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적실성을 획득해 왔으며, 지난 40여 년간의 사회변동과 이에 따른 학술적 요구에 대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수행해 왔는가를 냉철하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리학 연구도 사회적 활동의 하나이며, 그 존재 이유의 큰 부분은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과 기능이라는 점에서 지리학은 현실적 이해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일반에서 지리학에 대한 지명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아직도 일반사회나 학계에 서조차도 지리학이 자연환경을 주로 다루거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학문으로, 심지어는 풍수지리가 지리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지리학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중점영역을 능동적으로 개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영역을 제대로 고수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대학사회나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대학에서 신설된 학과가 있는가, 학문 후속세대의 충원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리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변동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제도적으로 보면, 한국지리학의 뿌리가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리교육의 주축이 되어 발전하여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리학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문인지 인접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게 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연구 인력의 확대와 학과의 증설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리학으로 이르게 한 악순환을 반복케 하였다고 생각된다.

2) 과제와 방향의 모색

우리 지리학도는 연구인력의 부족만을 탓하지 말고, 변동하는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 남자면, 안으로는 연구의 양과 질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리학 연구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밖으로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적 만족도를 늘려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지리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시대가 표방하는 지리학의 목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발전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지리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이다. 물론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의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동의 방향을 가늠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실천적 학문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대학에서 지리학 연구와 지리교육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연구 중점영역을 확립하여 특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리학의 연구영역을 한정하려는 논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생태학으로서의 지리학, 경관학으로서의 지리학, 공간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지향은 광범위한 지리학의 연구대상을 그 시대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결집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지리학 분야 중에서 새롭게 떠오른 분야가 지리정보체계 분야로, 타학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분야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계속 개발해 내어야 한다. 치열한 학문간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리학은 과연 이 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해야 할 것인가와 타학문에 비하여 그 세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리학의 존립은 학문 후속세대의 체계적인 충원과 육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인력의 육성은 대학원 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대학교수 수로서는 원활한 교육이 행해질 수 없다. 하나의 방안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학 영역을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통합된 영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간의 학점 교환이 필수적이다.

넷째, 현 상황에서 한국지리학의 연구인력과 제도적 여건은 극히 불리한 실정이다. 우선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하나는 최근의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리학부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뮌스터 대학의 경우, 지리학부에는 지리학 연구소, 경관(지역) 생태학 연

구소, 지리교육 연구소, 지리정보학 연구소, 지역 농업 연구소 등이 있다. 독일 대학의 연구소는 우리의 학과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리학부의 창설은 이상적인 제안이나, 한국의 경우 세블리로 이러한 안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지리학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하면, 환경분야 또는 지역학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학부안도 제시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학회의 제도적 개선 문제이다. 한국의 각종 영역을 대상으로 한 전문학회가 통합체제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학회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국가연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21세기 지리학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리학의 재발견』이란 책자로 출간되었다.³⁾ 21세기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지리학을 재창조하기 위한 연구영역 및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가칭 「21세기를 위한 한국지리학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리학의 존립과 발전을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 지난 역사를 냉철히 돌이켜 보고 현실 여건을 다시 점검하여 미래의 변동을 읽어내어 새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바람 몰아치는 외딴 섬에 홀로 남을 수 없다. 그것은 굶주림과 외로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에게는 「2000년 서울 세계지리학회」라는 유람선이 정박해 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새천년의 지리학이 해야 할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다. 처음으로 개최된 지리학자들의 연합학술대회가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 21세기 삶의 질은 물론 지리학의 질을 더 높히는데 기여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註

- 1)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삶의 질 : 공간과 환경」 연구의 결과물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 제14집 제1호(1996), 제15집 제2호(1997) 및 제16집 제3호(1998)의 전체 지면을 차지하

고 있다.

- 2) 조선일보 1999. 10. 11일자 참조
- 3) Rediscovering Geography Committee, 1997, Rediscovering Geography: Commission on Geosciences, Environment and Resour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 C.

文獻

- 김상균 외 5인, 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상균 외 1인, 1996, "삶의 질의 지표 설정과 한국의 위상," 정책논단, 3, 2, 한국외교문제연구원, 167-201.